

사무엘하 24. ‘다윗’의 인구 조사와 하나님의 징계 (삼하 24 장 1-25 절)

들어가기

오늘 살펴볼 24 장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한 일과 이 일을 계기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어 인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달은 ‘다윗’은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내리는 3 가지 징계 중에 한가지를 ‘다윗’이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든 따르고자 결심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3 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였고, 이로 인해 7 만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 모든 징계가 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아비 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길 바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였고,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1.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에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9 절)

1)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절)

✧ 1 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라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 우선 주목할 것 1. ->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

-> 그 이유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때문이었을 것!

- ex) ‘사울’ 시대의 죄 +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 이에 쉽게 동조한 백성들 + etc.

->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금 저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회개시켜 변화되기를 바라셨다는 것!

✧ 이때 주목할 것 2 ->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는 것!

-> 우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함!

- 곧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잘못된 마음 혹은 악한 마음을 품도록 충동질 하셨다고 생각하면 오해!!

-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결코 죄가 없으신 분!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맘에 일부러 악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아님!!!

->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실제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극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것!

- 역대상 21 장 1 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는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여 인구 조사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혹은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옴의 경우를 생각해 볼 것)

- ✧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성도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어려움들 혹은 고통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그대로 내버려두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죄를 뉘우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 ✧ 또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늘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
(ex)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할 것!

2) 이때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님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습니다. (3-4 절)

- ✧ 3 절, ‘...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 ✧ 그럼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닐까?
-> 우선 오해하지 말자. -> 인구조사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님!!
- 민수기를 보면 모세도 두 번 이상 인구조사를 시행하였고, 누가복음 14 장에서 예수께서도 임금이 전쟁하기 전 그 군대의 숫자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말씀.

-> 그런데 민수기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의 차이는 바로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성취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조사였다면, 본문의 ‘다윗’의 인구 조사는 그 의도가 그저 강대국이 되었다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 참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신 신명기적 역사관

- > 신명기 7 장 7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저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
- >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의 때는 이스라엘이 대국일 때, 곧 부국강병의 때라기 보다는 오히려 저들의 수가 적고 약하여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

-> 이런 역사관은 사사 시대에도 잘 드러남!

- 사사기 7 장 2 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군대가 많다는 것이 결코 자신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함!

- ✧ 따라서 ‘요압’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힘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자고 지적해 주었다는 것!

3)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거절하고, 유대와 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강행시킴!

- ✧ 인구조사는 총 9개월 20일 동안 시행됨
- ✧ 그 결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수가 이스라엘에서 80만명, 유다에서 50만명, 총 130만명으로 계수됨.
 - > 참고로 역대상 21 장에는 이스라엘에서 110만명, 유다에서 47만명으로 계수됨.
 -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역대기의 숫자는 각 성읍들과 마을의 사적인 명단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고, 본 장의 숫자는 공적인 문서들을 근거로 집계한 것으로 해석.
- ✧ 중요한 것은 당시에 130만명이 넘는 대군을 ‘다윗’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2. 그런데 ‘다윗’은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이 일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10-17 절)

- 1) 우리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며 죄를 뉘우치려 한 것을 통해서 그의 동기가 결코 건전하지 않았고, 자신의 교만과 과시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음!!
- 2) 이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 참고: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

- ✧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범죄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것!
- ✧ 곧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고,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결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 ✧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받게 하시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아닐까?
- ✧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죄없다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일 것!!
- ✧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항상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

3) 하나님은 선지가 ‘갓’에게 3 가지 징계 중 한 가지를 ‘다윗’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11-13 절)

- ✧ 이스라엘에 칠 년간 기근이 있을 것 / ‘다윗’이 원수들에게 3개월간 쫓겨 도망 다닐 것,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이 돌 것

✧ 이 3 가지 중 ‘다윗’의 선택은?

-> 14 절, ‘...’,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 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그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겠다고 고백!

-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겠다는 ‘다윗’의 신앙고백!
- 또한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변명 없이 받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보인 것!

4)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였고, 이로 인해 7만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15 절)

- ✧ 주목 -> 3일 이란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7만명이 죽었다는 것!
->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기 보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함!!

- ✧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 모른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고,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5) 특별히 16 절을 주목!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와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 ✧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진노 중에도 자비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

6) 이때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자신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으나 백성들을 치지 말고,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17 절)

- ✧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 하나님은 항상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자! (눅 15:10)

3.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의 길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마당에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18-25 절)

1) 우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누구인가?

- ✧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옛 여부스 족속 중 하나로 이방인이었음!
- ✧ 그는 모리아 산(당시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성 밖에 있었음)에 타작마당을 소유하고, 4명의 아들과 살았던 부자였음.
- ✧ 그런데 특별히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음!!
- 그래서 재앙을 멈추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소와 나무등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음. (22, 23 절)

2) ‘다윗’은 선지자 ‘갓’의 명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25 절)

- ✧ 당시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범죄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저들과 화목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음!

- 3) 주목할 것! -> 이때 ‘다윗’은 ‘아라우나’가 제사에 필요한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청을 거절했다는 것!
- ✧ 대신 ‘다윗’은 은 50 세겔을 그에게 지불하여 땅과 소와 나무를 구입하여 제사를 드림!
 - ✧ 그 이유? -> 24 절,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 >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용서와 화목의 예배는 결코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
 - >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와 화목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 참고: 역대상 21 장 25 절을 보면, ‘다윗’은 금 600 세겔 (6,840g)을 주고 당시 ‘아라우나’가 소유하고 있던 모리아 산의 모든 땅을 구입함!!
- ✧ 곧 은 50 세겔은 금히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선지자 ‘갓’의 말에 ‘다윗’이 순종하여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만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 ✧ 이후 ‘다윗’은 선지가 ‘갓’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진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그곳에 쌓기 위해서 그 땅 전체를 구입했다는 것!
 - >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땅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됨!
 - ✧ 곧 죄에 대한 인간의 ‘회개’ -> 하나님의 ‘용서’ ->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진 곳
 - > 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는 것!!
 - ✧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성도 ->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 그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됨!!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